

## 민주당 '인재영입' 소병철, 광주 전략공천?

영입 발표 전 '광주 동남을 · 북갑' 여론조사 실시

고향 순천 아닌 광주 출마 급부상...지역정가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 4호'로 발표한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에 대한 총선 경쟁력 조사를 위해 광주 2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의 선거구에 소 교수가 전략공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광주 동남을과 북구갑 선거구에서 소병철 교수를 후보군에 넣어 지지도를 조사했다.

당초 지난 5일 민주당의 발표로 소 교수의 영입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그가 순천 출신임을 감안해 순천으로 전략공천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순천은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분구 가능성이 제기돼 추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 교수 영입을 발표하기 직전에 광주 지역구에서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돼 순천이 아닌 광주 출마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순천이 고향인 소 교수는 광주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광주 출마도 무난하다는 평가다.

예상 후보지인 광주 동남을은 지역에서 거론되는 후보군 이외의 인물이 포함된 민주당 여론조사가 여러차례 실시돼 꾸준히 전략공천설이 제기됐다.

광주 북갑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으나 무소속 김경진 의원의 지지도도 만만치 않은 곳이다. 소 교수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이후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농협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으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이나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무개혁기획 청사진을 수립한 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네번째 영입인재로 발표한 소병철 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입당소감을 말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 교수는 '통합과 화합, 의회주의'에 원칙을 갖고 정치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있어, 검찰개혁을 현안으로 내세운 민주당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 교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광주와 전남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타 지역보다 높아 어느 곳에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 내 반발이다. 특히 광주 북구갑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대 총선에

서 민주당이 정준호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가 참패한 곳이다.

북갑에 또 다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지역에서의 심한 반발도 예상되는 등 역효과를 볼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지역구 출마와 관련, 소 교수는 인재영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인 정한 것은 없다. 당에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봉우 기자

광주시, 시민 인권강화

위한 제도개선...조례 개정

직장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조사

광주시가 올해부터 자치구에서 의뢰한 직장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의뢰한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 인권옴부즈맨이 조사하고 결정문을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처리하게 된다.

시는 또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밝힌 2명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공석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의 삶속에서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 등으로 지난달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과 함께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구성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시와 자치구 인권행정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의 인권이 보호받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시·자치구 행정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협력해 인권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일상에서 인권침해 구제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인권조례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해 17개 전국 광역자치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기여했다.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인권옴부즈맨 등 인권행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 화순서 다리 다쳐

탈진한 말뚝가리 구조

화순에서 탈진한 말뚝가리가 구조돼 야생동물보호협회로 넘겨졌다.

9일 화순소방서에 따르면 전남 오전 11시4분쯤 화순읍 세량저수지 주차장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새 1마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이 새를 포획해 전남야생동물보호협회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새는 숨만 쉴 뿐 날개나 다리를 쓰지 못했고, 다리 부분에 혈흔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날개를 펴지 않은 상태에서 부리에서 꼬리까지 48cm 크기의 이 새는 말뚝가리로 확인됐다.

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매과가 아닌 수리과로 분류된다.



###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 20일부터 본격 채취

3월 20일까지... "미네랄 풍부"

광양시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광양 백운산 고로쇠수액을 채취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일 빠른 일정이며, 가격은 작년과 동일하다.

첫물이 나오는 이날 20일에는 광양시청 현관과 포스코광양제철소 복지센터에서 홍보 판촉을 위한 고로쇠수액 시음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 완료했으며,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이 다양으로 함유돼 있다.

특히, 게르마늄 성분이 타 지역산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해마다 고로쇠약수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광양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수액 명성 유지를 위해 정제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 판매토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용기를 도입,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360여 농가가 97만l의 고로쇠를 채취, 33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광양 고로쇠채취 농가들은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수액용기에 정제일자 표기, 지리적표시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태욱 산림과장은 "고로쇠 수액에는 여러 미네랄 성분이 다양으로 들어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질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의 선호가 높고 있다"며 "산림의 건강을 지키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채취는 물론 산림생태환경 보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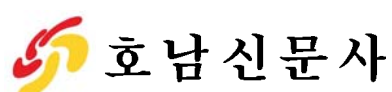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